

선행학습 자체에는 죄가 없지요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 정 민

새 정부가 새로 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얼마 전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2013년 1월 14일자)의 반론에 제시된 대안으로서의 '수준별 학습'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에 '수준별 평가'가 따라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한 다음과 같은 필자의 이메일 내용을 소개한다.

[태평로] 잘 읽고 공감했습니다. 대안 제시도 잘 뒀다고 보나, 대안이 더 강조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대로 된 수준별 학습'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문제는 서서이라도 해결 된다고 봅니다. 일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시다만, '수준별 학습'만 이 아니라 '수준별 학습'에 따른 '수준별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고 들어, '제대로 된' 것이 못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준별 평가'로 인해 앞서 가는 학생이 성적에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야 앞서 가기 경쟁이 수그러든다고 봅니다.

'수준별 학습 및 평가'에 이어 일정 수준 이상은 월반이 허용돼야 합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 월반이 허용되나 그 폭이 너무 작아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반 허용 폭을 넓혀 실질적 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조기 졸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한국 사람 중에 미국에 가서 고교에서 AP course 여러 과목 듣고 월반 졸업하고, AP 학점을 대학에 가 인정받아 대학도 조기 졸업한 뒤 대학원 박사과정 중 귀국해 육군 사병으로 자원 입대해 2년 가까이 일선 근무하고 돌아가 박사 마치고 선진국 대학에서 30세 전에 post-doc fellow로 일하는 경우도 봅니다.

정운찬 총리 시절에 선행 학습의 사교육 근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과 담당자에게 '수준별 학습 및 평가' 방법의 취지를 이메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와서 설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 뒤에 선 버스로 달려간 사람들만 태우고 떠나 버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허탕을 치게 하는 것에 비유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평소에 알만한 분도 많은 텐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 문제인 듯합니다. 무슨 맹렬한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자녀 둔 모든 학부모가 선행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나만 뒤처 지지나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따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법 제정과 시행 대신 예산 뒷받침을 해서라도 수준별 학습 및 평가를 철저히 시행 해서 재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된다면, 대부분 사교육을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서 잡자는 학생도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